

# 유제품 개방! 과연 낙농은 괜찮은가?

이 단 재

서울우유협동조합 생산기획부장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낙농도 시장개방 이후 엄청난 판도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원유의 잉여라던가, 가격의 하락과 같은 표면적, 충격적, 물리적 변화 뿐 아니라 낙농산업의 구조적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1985년 이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낙농생산기반의 자연발생적, 경제원리적 조정이 유제품의 본격적 시장개방 원년이라 할 수 있는 1995년 부터는 급진적 조정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10두 미만의 소규모 낙농가 수가 감소되고 20~30두 규모의 중견 낙농가들이 서서히 성장하여온 움직임과 전체낙농가 호수가 점차 감소되어 지난 10년 동안 약 25%의 낙농가가 전업 또는 폐업을 하여 왔으나 1995년 이후로는 매년 거의 10~15%의 낙농가가 낙농경영의 경쟁 트랙에서 중도 탈락 될 것이며 목장규모도 30~40두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기반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판도변화의 또 다른 면은 원유의 거래 상황변동이다. 그것은 중소

규모 낙농가와 대규모 낙농가와와 원유거래 창구가 달라지는 원유거래의 구조변화이다. 중소규모 낙농가들은 개방 이후의 낙농시장에서 그나마 원유의 판매 문제에서 천대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낙농협동조합으로 거래를 하게되는 경향이 강하게 될 것이며, 대규모 낙농가들은 개인유업체들의 고수의 유제품에 기여하는 댓가로 높은 원유가격을 교섭하여 거래하게 될 것이다.

원유의 소비량의 절대다수인 백색 시유는 물류비용의 증가와 유통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지방화와 더불어 원유의 현지생산, 현지 소비체제로 전환되면서 상당 기간 가격의 안정이 예상된다. 그것은 원유가격의 인상이 상당기간 불가능 함을 뜻한다.

최근 수년 동안 소위 특별우유라는 시유 시장의 고급화와 고가화는 현 수준에서 동결내지는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전체 생산원유의 유질이 불원간 선진화되어 특별우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으로 더 이상 우유에 대한 상품정보의 왜곡

된 평가로 혼란을 거듭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국민의 식량으로 일상 식품이 된 우유가 상흔에 의해 패션 상품화 되어 온 상황의 종말을 뜻 하기도 하며 낙농이 수입개방의 파고를 넘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기도 하다.

낙농은 쌀이나 무우, 배추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수품인 식량으로서 우유를 생산하는 한 존립되고 불멸의 생존이 가능한 것이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시키는 유해상품화 해서는 존재가치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유제품의 소비구조가 음용유의 소비비율이 감소되는 반면 가공유제품의 소비가 대폭 늘어나며, 음용유는 국내생산원유의 몫으로, 가공유제품은 수입유제품의 몫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음용유 중에는 점차 그 소비가 늘어나는 가공음용유는 또 수입분유의 사용으로 대체 될 것이다. 또 최근 호주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하는 멸균유의 유통기한 연장문제는 백색시유의 시장까지 노리는 수입유제품의 무서운 시장침투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유제품의 소비구조변화는 낙농가의 원유거래 교섭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시유를 비롯한 신선 유제품이 국내생산 원유의 몫이라면 원유의 수급문제에 매우 심각한 고민이 동반하게 된다.

낙농가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시유는 계절적 소비 변동이 클 뿐 아니라 학교급식의 소비물량 변동이 개학과 방학기간에 무려 20%이상 총 시유소비량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더우기 우리나라 낙농의 생산구조가 비수기인 겨울에는 증산, 성수기인 여름에는 감산하는, 다시 말해서 소비구조와 생산구조가 역행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수급문제 고민에 뿌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비수기에 쌓인 저장성 유제품을 성수기에 풀어쓰는 방법으로 해결하여 왔으나 그것은 소비시장을 폐쇄시켜 둔 상태에서 가능한 일일 뿐이며 저장성 유제품인 분유와 치즈, 버터 등이 1/3의 값으로 수입되어 그 시장을 점령해 버리면 비수기 잉여 유제품은 고스란히 수입품과 같은 값으로

생산기반의 변화와 더불어 중소규모 낙농가와 대규모 낙농가와의 원유거래 차이가 달라지는 원유거래의 구조변화이다. 중소규모 낙농가들은 개방 이후의 낙농시장에서 그러나 원유의 판매문제에서 천대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낙농 협동조합으로 거래를 하게되는 경향이 강하게 될 것이며, 대규모 낙농가들은 개인유업체들의 고수의 유제품에 기여하는 댓가로 높은 원유가격을 교섭하여 거래하게 될 것이다.

팔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비수기에 분유나 치즈가 20% 쌓이고 그것이 1/3의 값으로 팔 수 밖에 없다면 낙농가에게 살 수 있는 원유의 가격은 비수기에 최소한 10%이상 내릴 수 밖에 없어진다.

이상과 같은 낙농시장 개방 이후의 낙농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낙농가의 생산활동에 매우 부담이 되는 낙농경영의 의사결정을 요구하게되고 그것은 낙농가의 경영능력이 경쟁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수입개방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1995년의 원유수급은 생산이 약 2.5% 증가한 196만톤, 소비는 약 11% 증가한 230만톤 정도로 예측되고 있고, 그 중 백색시유의 소비량은 약 150만톤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에는 원유로 환산한 약 34만톤 정도의 수입총당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196만톤의 생산된 원유 중 150만톤을 시유로 만들면 나머지 46만톤은 가공유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체 원유 소비량의 12%를 차지한 발효유, 7%를 소비한 가공시유, 6%를 차지한 치즈류, 5%를 소비한 분유류 등이 거의 수입 제품으로 대체될 전망이어서 원유의 잉여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분유류의 국제가격은 수입통관가격으로 약 10%정도 국내산 보다 싸다. 그러나 혼합분유류는 무려 반값이거나 그 보다 좀 더 싸다. 치즈류는 국내산이 약 1.4~1.7배 정도 비싸다.

현재 상황에서 냉정하게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안을 검토하면 이렇하다.

1) 원유의 잉여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다음의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잉여원유에 대한 정책적지원을 위한 재원의 준비
- 국내 낙농산업의 붕괴를 예방하는 데 GATT 대응능력
- 국내산 우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체제 구축

2) 낙농가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다음의 준비사항은 되어 있는가?

- 원유의 품질향상-적어도 선진국의 수준이 가능한가?
- 원유의 가격이 현 수준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는가?
- 생산성 향상과 작업의 능률화로 생산원가의 절감이 가능한가?
- 낙농가의 전국적 연대기능이 가능한가?-협동조합 또는 낙농협회
- 국내산 우유제품의 소비촉진 캠페인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3) 낙농협동조합은 통합적 기능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전국낙협의 시유시장의 통합여건 구축-생산, 유통, 원유의 수급 등.
- 원유의 집유를 일원화 할 수 있는가?-낙농진흥법의 개정여부에 상관없이.

이상과 같은 고려사항들이 만족하게 이루어진다면 시장개방 이후 우리나라 낙농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정부가 잉여원유의 처리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낙농가들은 원유의 가격을 적어도 10% 정도는 내려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다행히 원유의 잉여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낙협이나 유가공업체들이 영업활동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는 흡수가 가능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에게 다소 유리한 소식은 세계 유제품시장의 60%이상을 점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유제품 재고가 15년 계속된 원유생산 쿼터 제도실시로 거의 바닥이 나고 이에 따라 국제시세가 장기적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거래물량도 격감된 상황이어서 우리 우유의 가격격차가 다

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낙농위원회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의해 유럽 연합의 역내 국가들은 4%의 원유생산량 감축과 10%의 원유가격하락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은 남의 나라 일이나닌 바로 우리도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낙농가들이 사육규모를 늘리고 기계화작업을 하며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이며 행정적인 정부지원을 간과한다면 우리나라 낙농의 경쟁력은 영원히 구제불능의 사양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보도를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보조나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등 모든 낙농국들은 협상 이후에도 적게는 45%, 많게는 60%이상 생산보조를 여전히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않고 우리 낙농가들도 그들과 같은 직접 보조나 지원은 받지 못할 망정 생산여건은 선진국들의 낙농가에 못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

우리 정부는 보도를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보조나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등 모든 낙농국들은 협상 이후에도 적게는 45%, 많게는 60% 이상 생산보조를 여전히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않고 우리 낙농가들도 그들과 같은 직접 보조나 지원은 받지 못할 망정 생산여건은 선진국들의 낙농가에 못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자라나는 2세들에게 신선한 생유로 만든 우유를 마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된 분유에 물을 타서 먹게 할 것인지의 양자 택일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자라나는 2세들에게 신선한 생유로 만든 우유를 마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된 분유에 물을 타서 먹게 할 것인지를 양자 택일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낙농가는 아직 우리나라 원유의 위생적 수준에서 볼 때 선진국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낙농경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협동정신이 부족한 점등을 자각하고 빨리 개선토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 되어온 바와 같이 우리 낙농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유를 중심으로 한 신선 유제품의 자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시유와 신선 유제품의 생명은 원유의 품질, 특히 위생적 품질이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원유의 위생적 품질의 선진화는 곧 우리 낙농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작업이다.

1993년 이후 원유의 위생유질에 의한 차등가격제도의 도입 이후 우리나라 원유의 세균수는 급격히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체세포수의 감소나 항생물질잔류문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점으로 남아 있다.

또 수입개방 이후 개인유업체들은 원유가 부족하면 수입으로 충당하고 남으면 당연히 원유가격을 내리거나 수유거부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원유의 공급체제하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죽으나 사나 낙농가와 원유구입을 위한 거래 교섭을 해왔지만 이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수가 틀리면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게된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 아래에서 낙농가들이 원유의 거래에서 손해 보지 않고 거래 상대로부터 제대로 대접 받고자 한다면 낙농가들은 한시 바빠 낙농조합으로 결성하고 그 조합들은 전국적 연대 직을 가지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함으로서 강력한 거래교섭력을 스스로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전국의 27개 낙농조합들이 제각기 거래교섭을 행사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으로의 연대가 어렵다면 우선 낙농협회라라도 모든 낙농가들이 힘을 모아 줄 필요가 있다. 모든 낙농선진국들의 낙농가들이 낙농협동조합에 모두 가입하고 협회에 회비를 마다않고 내는 이유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기 위한 지혜의 결과인 것이다.

또 낙농가들이 해야 할 일은 우유의 소비증대를 위한 공동홍보에 참여할 일이다. 공동홍보 말만 나오면 낙농가들은 그걸 왜 우리가 해? 유가공업체 좋은 일 시키는데 우리가 왜 돈을 내? 유업체 끼리나 잘 해 보라지! 하고 필쩍 뛰고 있다.

우유소비가 잘 되면 물론 유업체도 득을 단단히 볼 것이지만, 그들 보다는 낙농가들이 훨씬 더 큰 득을 얻게 된다. 유업체들은 제각기 자기회사 상품선전이나 하다가 우유장사가 시원찮다 싶으면 즉시 과자나 음료수 공장으로 돌변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유업체들이 스낵종류나 음료수 쪽으로 눈을 돌리고 유가공업에서 다양한 식품제조업으로 선회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낙농가들에게는 우유의 소비가 생업의 향방을 갈라 놓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유

소비를 위한 공동홍보는 누구보다도 낙농가 자신을 위한 확실한 투자인 것이다. 이 공동홍보 역시 거의 모든 낙농국들의 낙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잘 알려진 낙농정보이다.

우리 낙농가들은 대체로 매우 부지런한 편이다.

그러나 다른나라 낙농가들에 비하면 우선 낙농경영을 위한 생활태도를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낙농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초보적이며 필수적인 일은 낙농경영 기록이다. 기록은 경영개선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료이고 출발점이다.

몇호소가 결합이 있고 병력은 어떠하며 개량할 포인트는 어느 부위라는 등등의 정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목장의 우군개량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젖소의 일량사료중 몇가지의 단미사료가 명%씩 혼합되어 있고 각 단미사료의 구입가격은 매번 어떻게 올랐다 내렸다 했는지? 사료를 변경한 뒤 유량의 증감 상태는 어떠한가?

도무지 이러한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는 낙농가가 몇이나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낙농가들의 낙농경영 태도이다. 최근에는 젊고 유능한 낙농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목장경영개선 기록과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수는 아마도 몇몇 안되는 지경일 것이다. 심지어 유대를 결정해 주는 기초 자료가 되는 축협 낙농경영실태조사에서 돈을 주면서 까지 낙농일지를 제발 좀 써 주시요 해도 제대로 써주는 사람이 드문 실정이다.

그러고는 유대를 심의하는 회의에서는 유대를 몇 % 올려야 된다고 크게 외쳐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허공의 외침만 된다. 낙농가가 스스로 유질개선도 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들도 옛날 같이 울타리 속의 상품만 찾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낙농가들은 남편이 한 일을 보고 하면 부인이 기록하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낙농가들이 이젠 정말 잠에서 깨어나 세계를 바라볼 때가 되었다.

낙농조합들의 전국적 연대기능은 낙농시장 개방 이후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시유시장의 통합적기능과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우리 낙농가들은 대체로 매우 부지런한 편이다. 그러나 다른나라 낙농가들에 비하면 우선 낙농경영을 위한 생활태도를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낙농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초보적이며 필수적인 일은 낙농경영 기록이다. 기록은 경영개선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료이고 출발점이다.

몇호소가 결합이 있고 병력은 어떠하며 개량할 포인트는 어느 부위라는 등등의 정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목장의 우군개량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있다. 지금과 같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시유 처리장들이 생산한 시유제품을 전국상대로 판매하는 체계는 물류비용의 증가와 지방화시대의 발전, 그리고 유통마진의 확대등의 조건이 더이상 유지하기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경상도의 낙협에서 생산한 시유가 서울시장에서 팔리고 서울지역의 낙협에서 만든 시유가 전국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현재의 시유시장 판도는 엄청난 비용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 시유업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인유업체들은 경쟁사들끼리 통합이 쉽지 않다. 반대로 낙협끼리는 그러한 경제사업의 통합이 쉽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용이하다.

이 문제는 최근 호주정부가 우리나라 시유시장을 겨냥하여 평균유를 수출하려는 시도를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시유시장을 전국의 낙협이 통합연대하여 유통마진과 물류비용을 대폭 줄이고 보다 신선한 시유를 소비자 가까이서 공급하게 된다면 어떠한 수입제품도 시장을 침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낙협들은 자기조합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낙농업 전체의 이익과 생존을 위하여 낙협의 전국연대노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